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공회를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10월 27일(일) 제1513호



사진은 지난해 '사르밧 프로젝트'.

온누리의 가을, 감사와 나눔으로 물든다!

10월 28일부터 사르밧 프로젝트 배송 시작 개인과 기관 1,560곳에 '감사의 쌀'과 '성경책' 전달

온누리의 가을이 감사와 나눔으로 물들고 있다. 2024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감사의 쌀' 배송이 10월 28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한동대학교 졸업생들이 창업한 소셜벤처(Social Venture, 사회적기업) '레베카'에서 구매한 햅쌀 한 포대(20kg)와 성경책을 사르밧 프로젝트 대상 성도, 교회 밖 이웃, 기관 등에게 택배로 발송한다<관련 기사

12면>.

올해 사르밧 프로젝트는 지난 8월 24일(토)부터 9월 29일(일)까지 이어졌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눈부셨다.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3억9천여만 원(390,288,056원)을 헌금했다. 이 헌금으로 개인과 기관 1,560곳에 '감사의 쌀'과 '성경책'을 전달할 예정이다. 성경책은 국내 2,500

여 권, 해외 선교지에 7,500여 권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는 "올해도 변함없이 '감사의 쌀'과 '성경책'을 나누는 사르밧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많은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성도님들의 감사와 사랑이 나눠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11월부터 연말까지 '열린순예배'

온누리교회 모든 순에서 기획 및 실행

아주 특별한 전도의 장(場)이 펼쳐진다. 11월부터 연말까지 온누리교회 모든 순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주제로 '열린순예배'를 드린다.

열린순예배는 그동안 순예배에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나 마음에 품고 기도해 오던 전도대상자를 초대하여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잔치이다. 11월 순예배부터 연말까지 각 순에서 '열린순예배'를 기획하고 실행하면 된다. 열린순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초대할 수 있다. 열린순예배 장소는 가정이나 카페, 영화관, 음식점 등 자유롭게 정하면 된다.

열린순예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열린순예배 <가이드북>'도 준비했다. 열린순예배를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법이 두 가지 버전으로 수록되어 있다. A타입은 38분, B타입은 85분 소요된다<관련기사 6면>.

CGN 정기후원 행사 1,650명 참여

지난 10월 19일(토)과 20일(주일)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열린 'CGN 2024 정기후원 행사'에 후원자 약 1,650명이 참여했고, 연간 3억9천만 원(10월 23일 기준)을 후원하기로 약정했다.

CGN 전진국 대표는 "후원자님들이 보여

주신 것처럼 CGN 임직원들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CGN 정기후원은 언제라도 참여할 수 있다. 웹사이트(www.cgntv.net)나 전화(02-796-2243)로 신청하면 된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용서와 화해의 대서사 뮤지컬 <바울과 나>

11월 2일~12월 7일
KT&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

용서와 화해의 대서사 뮤지컬 <바울과 나>가 11월 2일(토)부터 12월 7일(토)까지 KT&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에서 막 오른다.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2시와 6시에 공연한다(월요일 공연 없음). 티켓 가격은 R석 7만원, VIP석 9만원이다. 인터파크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다.

<바울과 나>에는 바울 역 배우 오종혁, 최수형, 아나스타 역 배우 선예, 선우, 크리스티나 역 배우 김은채, 홍금단 등이 출연한다. 창작진으로 김효선 작가와 이석준 연출가가 이름을 올렸다.

뮤지컬<바울과 나>는 ㈜바울과나 컴퍼니가 제작하고, ㈜야긴과 보아스 컴퍼니가 제작대행 및 CA문화재단이 후원했다.

문의: 070-7702-9053

/ 박지혜 기자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10월 27일 오후 2시 시청 앞~광화문 일대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10월 27일(일) 오후 2시 시청 앞~광화문 일대에서 열린다. 온누리교회 참가 성도들은 19, 20번 집회장소(서울역 앞)에서 모인다.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는 '동성헌 합법화', '차별금지법' 등 악법 저지를 위해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다. 주제 말씀은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삼상 11:14)이다.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의 목표는 200만 성도 참가다. 현재까지(10월 24일 기준) 61만 명이 참가신청했다. 참석을 희망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신청없이 집회 장소로 모이면 된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지난 주일설교에서 성도들에게 "세상의 선동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악법 저지를 위한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회개의 예배이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수호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회가 이어졌다. 지난 9월 17일(화) 40일 특별철야기도회를 시작으로 10월 12일(토) 7시간 연속기도회, 10월 14일(월)~16일(수) 3일 금식기도성회, 10월 25(금) 한국교회 연합 철야기도회를 했다.

문의: 02-3215-3313

010-9652-3314 (문자메시지)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예수님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만 주시지 않고,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내내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수님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그와 함께하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에서는 환상 가운데 “두려워 마라. 잠잠히 잊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는 환상 속에서 “서둘러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거라. 이곳 사람들은 네가 나에 대해 증언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직접 임재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11절).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는 이 문장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능력이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증언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수고했으니 쉬어라”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일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증언이 예루살렘에서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을 볼 때 죽음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사도 바울의 증언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바뀐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앞날에 있을 일을 지하 철노선 보듯이 모두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미리 알려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걸음을 내딛을 때 그 다음을 알려 주십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순종의 발걸음이 있을 때 다음 발걸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다**

예루살렘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했던

사도 바울에게 이제 “로마에서도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사명의 발걸음을 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우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이 어떨습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합니다.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었을 때 “꼭바로 쳐다보며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음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비굴하게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 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 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 다.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선한 양심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공회를 꼭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1절).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않았습니 다. 그가 경험한 진실,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과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는 것,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 그 진실만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험난한 여정을 겪고, 예리한 공격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내적인 힘은 선한 양심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입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불같은 성격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위축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반응하며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오.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명령하고 있지 않소!’”(3절).

자신을 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이라는 표현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세례 요한과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사적**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 다. “감히 네가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라는 말에 비로소 대제사장이라는 걸

알고 사도 바울이 그의 위치와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대제사장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사적입니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 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 다’”(5절).

원수 같은 이에게도 예의를 갖춥니 다. 담대한이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욕하고,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담대하며 동시에 신사적입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양극단으로 대치되어 있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적이 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과 인격을 구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인격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며 분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얼마든지 토론하고, 치열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은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사적입니다. 담대하게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동일한 대상을 신사적으로 대하는 게 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대하다보면 비신사적이 되고, 또 신사적이 되다 보면 담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증인은 담대하며 또한 신사적인 인격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인은
상황을 반전시키는 지혜가 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증인은 상황을 반전시키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인 사람들, 공회원을 가운데 일부는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두개파’는 구약시대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사독은 성전을 관리하는 직임을 맡은 사람이고, 그 이후 사독의 후예들이 성전을 관리했습니다. 문제는 성전을 매개로 그들이 이득과 사명을 추구하고, 권력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의 세계도 믿지 않는 지극히 물질주의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물질주의적이 됩니다. 사두개파 사람은 오늘날 유물론자들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에 나타난 부활에 대한 약속,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영의 세계, 천사의 영역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틈을 이용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공격과 위협에도 녹슬지 않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담대하고, 신사적이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체험했었습니다.”

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내가 이처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라고 호소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기 전에 이미 구약에 죽은 자의 부활 소망을 보여 주셨고, 여러 표적과 약속을 통해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라고 하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연합 했다가 균열이 생기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하나로 뭉쳐 있었다면 천부장이 개입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틈을 벌리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흉악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선으로 가장하고, 자유로 가장하고, 인권으로 가장해서 우리의 신앙을 녹슬게 만듭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칼을 칼집에서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사시에 칼이 칼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녹슨 칼집에 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깨어 있었기에 위기 상황에서 상황을 반전시키는 지혜의 칼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무서운 이데올로기가 신앙을 녹슬게 하고 있

습니다. 그 이데올로기의 거짓을 파헤치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성이 부여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여자로 살고 오늘은 남자로 살고 내일은 어떤 성으로 살지 자기도 모르다고 주장합니다. 이 무서운 이데올로기에 맞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고, 이 문제를 뚫고 나가려면 우리의 신앙이 녹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역설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경험

넷째, 그리스도의 증인은 역설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소동하는 가운데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려고 뺄뻍니다.

그때 유대 사람 40명이 헌신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결의합니다. 무서운 테러리스트들이 나선 것입니다. 그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천부장에게 사도 바울을 다시 공회로 데려오도록 요청을 합니다. 감옥에서 공회로 오는 길목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음모를 꾸밉니다. 엄청난 암살음모입니다. 하나님이 이 음모를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조카가 듣게 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도 바울의 조카가 이 계획을 엿듣고 천부장에게 달려가 사실을 알립니다.

천부장은 밤 9시 어두울 때 사도 바울을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급송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위해서 200명의 보병대, 70명의 기마대, 200명의 창을 둔 군인을 동원합니다. 어느 학자는 이 규모가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병력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병력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40명의 테

러리스트들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천부장에게 신앙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인척관계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신이 통치하는 영역에서 불필요한 암살로 인해서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대인들이 음모가 도리어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까지 안전하게 호위를 받으며, 그것도 걸어서가 아니라 말이든 나귀든 동물을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악한 음모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악한 음모가 사용 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음모를 일으켰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음모마저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이 동물을 타고 호위를 받으며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여기서 유대 지도자들의 악한 양심과 로마 법을 지키는 세속 통치자들의 객관적인 양심이 대조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은 거짓과 고소, 암살 위협을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권력은 도리어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양심적인 유대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을 녹슬게 하고, 못쓰게 만들려고 했지만,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담대하고, 신사적이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19세기 중반 30년 동안 아프리카 정글을 다니며 60만 명 이상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은 의료선교사가 되기 위해 의학을 공부했지만, 선교사로 헌신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곳이든 보내 주십시오. 주님이 저와 그곳에 함께 가 주십시오. 어떤 짐이든 주십시오. 오직 견뎌낼 힘도 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는 원래 중국 의료 선교사로 가려고 했지만 아편전쟁으로 인해 가지 못하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을 다니며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한편으로는 노예무역을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도리어 노예 무역상들이 그가 만든 지도를 가지고 아프리카를 다녀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다니며 맹수와 질병, 어떤 지역에서는 백인은 무조건 죽이는 원주민들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가 죽음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해주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마지막 탐험지 근처 작은 오두막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원주민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어 1,600km를 8개월 동안 걸어서 운구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 걸었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과 리빙스턴 모두 살해 위협과 질병,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공격과 위협에도 녹슬지 않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담대하고, 신사적이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녹슬지 않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제4차 로잔대회 오해와 왜곡 ‘팩트 체크(Fact Check)’ (2)

장선범 목사(행동하는크리스천연구소)가 말하는 ‘로잔대회 의미와 목적’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이하 제4차 로잔대회)에 관한 오해와 왜곡된 시선이 아직도 난무하다. 온갖 거짓, 본질과 전혀 다른 주장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에 <온누리신문>에서는 그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고, 제4차 로잔대회의 올바른 의미와 성과 등을 성도들에게 알리는 장(場)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장선범 목사(행동하는크리스천연구소)가 제4차 로잔대회에 관한 오해와 왜곡을 ‘팩트체크(Fact Check)’ 하고, 더불어 로잔대회 의미와 목적을 설명했다.

/ 편집자 주



장선범 목사
(행동하는크리스천
연구소)

제4차 로잔대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전 세계 지도자들을 모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행사를 진행했는가? 로잔운동이 가지는 교회사회적 의미를 살펴 보면서 그 의미와 목적을 설명하고자

한다.

로잔대회, 배교의 흐름 막는 행사

결론부터 말하면, 로잔선교대회는 종교통합을 촉진하는 배교집회가 아니라 사실상 배교의 흐름을 막기 위한 행사다. 기독교인에게 배교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신앙을 배신하는 행위가 배교 아닌가? 오늘날 교회의 배교는 어떻게 일어날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첫째, 교회가 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지상명령에 헌신하지 않는 것이다(마 28:19~20). 둘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갈 1:7~8).

로잔대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기 위해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역사적인 신앙고백과 선교 헌신 문서를 만드는 복음주의의 중요한 역사적 행사다. 그 시작은 50년 전,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되었다. 제4차 로잔대회의 표어를 살펴보자.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제4차 로잔대회는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기 위해 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국제적이고, 역사적인 복음주의

선교대회다. 이 행사의 열매는 <서울선언>이다.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도전과 과제를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고백과 선교 헌신의 차원으로 작성하는 권위 있는 복음주의 문서다. <서울선언>은 그 자체로 복음주의 신학 노선의 기준이 된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범람해서 성경 무오성을 믿지 않는 경향이 확산되고, 성경 해석의 기준이 인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의 복음주의적 교단으로 알려진 ‘PCUSA장로교단’과 ‘UMC연합감리교단’이 어쩌다 성별 기준과 결혼 정의를 교리 차원에서 바꾸게 되었나? 이제 서구 유럽과 미국, 캐나다의 많은 개신교 교단에서, 남녀 성별 외에도 사회적 성(Gender)이 기준이 되어 여러 가지 성별이 있다고 가르치고, 더욱이 결혼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결합뿐 아니라 성인 두 사람 간의 결혼, 즉 동성 결혼도 합법적인 기독교 교리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에 정면으로 부딪치는 다른 복음을 만

오늘날 교회가 인간의 성 정체성을 왜곡하고, 그것을 교리화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될까?

첫째, 교회의 강단에서 게이(Gay) 정체성을 당당히 밝히는 자들이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 둘째, 트랜스젠더(Transgender)가 교회의 장로와 권사가 되어 교회의 리더로 직분을 받고, 교회의 정책을 정하고 강단에서 기도한다. 셋째, 동성 결혼식을 교회에서 주관하며 목사가 이를 축복한다. 넷째,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LGBTQ+ 교사가 성경을 가르친다. 다섯째, 올해부터 새롭게 젠더 성평등에 입각한 성 중립적 성경 번역본을 모든 예배에 필수적으로 사용한다.

위의 묘사는 지금 서구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필자는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하는 목사의 설교 영상을 우연히 발견하고, 즉시 번역해서 유튜브에 올렸다(youtu.be/uBOCGSrOOE).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멸망의 가증한 모습을 보았다”고 댓글을 달았다.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미 현실

“제4차 로잔대회는 그 자체로 온전한 복음(Whole Gospel)의 선포다. 미혹의 시대, 어둠을 밝히는 선명한 진리의 빛이다.”

들어 버린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집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배교 행위이다.

이미 시작된 배교의 흐름

이미 서구 교회들 사이에서 집단적 배교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이로 인해 벌써 성(性)과 결혼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고수하는 복음주의 교회와 목회자가 역차별과 박해를 받는 실정이다. 그런데 한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WCC(세계교회협의회)가 전 세계의 종교통합을 촉진함으로 교회를 배교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많은 사람이 주장했지만, 예상 밖으로 그들의 영향력이 미미했다는 점이다. WCC는 회원 교회에 대한 어떤 강제력을 행사할 만한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회원 교회를 향해 치리권, 인사권, 그리고 재산권 등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개별 교단이 훨씬 위협적이다.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선택하는 순간, 교회는 배교를 택하든 박해를 택하든 둘 중 하나의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성 혁명을 통한 교리 변경과 그에 따른 교리 강요 및 처벌이 오늘날 서구 교회의 집단 배교의 패턴으로 볼 수 있다.

에서 일어나고 있기에 믿을 수 없다”고 반응했다. 이는 미래의 상상이 아니다. 심각한 배교의 흐름은 서구 교회에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인지해야 한다.

집단 배교 현상 속 ‘거룩한 방파제’

교단(denomination)이 교리(doctrine)를 바꾼다는 것은 결국 성경 해석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이 새로운 교리로서 교단의 감독을 받는 모든 회원 교회의 신앙생활 기준이 된다. 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는 원하는 것만 취사선택해서 특정 교리를 수용하거나 특정 교리만 거부할 수 없다. 총회에서 변경된 교리는 각 교회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사실 교단 총회에서 교리를 바꾸는 결의를 했다는 것은 이미 그 교단의 대다수 교회 지도자가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집단적 배교 행위이다. 집단 배교의 위협은 서구 교회에서 복음적 신앙을 붙잡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는 매우 절박하고 실질적인 도전이다. 물론 한국도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그래도 힘이 있고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제4차 로잔대회에서 발표한 <서울선언>은 세계 교회의 관점으로 볼 때, 복음을 사수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전 세계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적 선언’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서울선언>은 챕터 I에서 III까지 복음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개신교 정신에 충실하게 기초를 내렸고, 챕터 IV부터 VII까지 세상 속에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날 수 있도록 시대를 반영한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 잘 기술하고 있다. 특히 챕터 IV는 인간에 대한 주제로 48항에서 70항까지, 총 22항에 걸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회복되는 존재는 인간’을 성경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성 정체성, 결혼 관계, 그리고 동성애 이슈까지 다룬 56항에서 70항은 ‘인간의 성 정체성과 동성애’에 관해 선언한 최초의 복음주의적 세계적 연합 문서로서 그 가치를 이루 말할 수 없다.

IV. 56-70항은 다음 세 가지 진술을 전 세계를 향해 선포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이 창조한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둘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결합이다. 셋째,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이다. 이는 미혹과 배교의 흐름 속에 방황하는 전 세계 교회를 향한 선포이기도 하다. 첫째, 교회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간론으로 돌아오라! 둘째, 교회여, 어떤 손해와 박해가 있더라도, 오직 성경의 진리를 붙들라! 셋째, 교회여, 함께 성경의 말씀으로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자!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4차 로잔대회의 슬로건이 되는 것이다.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제4차 로잔대회 <서울선언>은 그 자체로 온전한 복음(Whole Gospel)의 선포다. 미혹의 시대, 어둠을 밝히는 선명한 진리의 빛이다.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서구 교회에 성 정체성과 동성 결혼 교리화를 통한 집단 배교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서울선언>을 통해 신학적인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아울러 성별 혼란 문제로 양심의 고통을 받는 전 세계의 교회들(Whole Church)에게 용기를 주고, 온 세상(Whole World) 가운데 분명한 인간과 창조 질서에 관한 초석을 세운 기독교 문서(Whole Gospel)로 자리 잡을 것이다.

장선범 목사(한동대학교 경영·국제 학사 / 싸우스웨스턴침례신학교(미국 남침례교단) 목회학 석사 / 계명대학교 조직신학 박사과정)는 한동대학교를 졸업하고 중동아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다. 이후 목회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성경을 불법화시키는 법안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교회와 다음세대의 신앙 자유를 위한 ‘행크연구소’(행동하는크리스천연구소)를 세워 기도하고, 행동하고, 연구하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세계관은 이야기다

성경 이야기에 내 삶을 묶으며

부푼 기대를 안고 2008년 온누리세계관학교를 시작했다. 초기 2-3년 당대 내로라하는 강사님들의 강의를 열심히 들었는데, 세계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나왔다. 그즈음 접하게 된 책이 제임스 사이어의 <코끼리 이름짓기>다. 그 책은 이렇게 시작한다.

‘먼 옛날 어떤 소년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아버지에게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물었다. 한참 생각하던 아버지가 ‘그건 코끼리지’라고 대답해 주었다. 소년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그 코끼리를 떠받치는 것은 뭔데요?’ 그러자 ‘더 큰 코끼리야’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당신의 코끼리는 무엇인가?’라고 묻는 이 책의 도전에서 과거 내가 가졌던 ‘인본주의적 세계관에서 코끼리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다. 그들은 그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고, 관심도 없으리라는 결론이 쉽게 나왔다. ‘가장 지성적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구나’라는 자각이 들었다.

그런데 <코끼리 이름짓기>는 몇 가지 명제(1. 진정으로 참된 최고의 실재(實在, Prime Reality=코끼리)는 무엇인가? 2. 인간은 무엇인가?)에 어떤 대답을 내어놓는지로 세계관을 분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책이 아니다. 저자 제임스 사이어는 1985년 그의 저작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이란 책에서 7가지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세계관의 중요 쟁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랬던 그가 <코

끼리 이름짓기>에서는 “세계관이란 이야기 형태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몸담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는 하나의 결단이요, 근본적인 마음의 지향”이라고 밝히고 세계관의 형태가 이야기(서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계관을 재정립했다.

2013년 온누리세계관학교에서 초급반을 위한 1차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다. 담당목사님과 아침에 모여 세계관 관련 책으로 북클럽도 하고, 목사님이 불러 주시는 내용을 녹취하고 문답식으로 바꾸는 레이아웃도 하면서 당시 무르익은 ‘세계관은 이야기’라는 개념에 많이 다가갈 수 있었다. <성경은 드라마>, <그리스도인의 비전>, <은밀한 세계관>, <세계관은 이야기> 등의 책을 참고했고, 세계관 개념을 도입한 책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으로 북클럽을 해나갔다. 교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세계관이 이야기라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가질 수 없었고, 오히려 그때 접한 책들이 왜 그렇게 세계관이 나에게 모호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 세계관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문화 속에서 친구들과 동료들과 공유하는 이야기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구체적인 형태로 무의식 속에 뿌리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기독교적 세계관이 10대에 벌써 나를 선점하고 있었다. 나에게서는 성경을 하 나의 이야기로 엮어내는 연습이 필요했다. 성

경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를 대체할 만큼 조직적이며, 강력해야 했다. 성경 이야기는 시작이 있고, 마침이 분명하다. 그동안 진지하게 생각지 않았던 종말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빌 3:21)”는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 땅에서의 모습과 연속성을 지니는 부분도 있고, 불연속성을 지니는 모습도 있다. 영생의 몸 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경험을 어디엔가 새겨서 가지고 나올지 아닐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구석구석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다.

2018년 C.S. 루이스의 책들을 나눈 북클럽에서 ‘하나님을 맞볼 수 있는’이라는 표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에 다가옴을 느꼈다. 그 사랑이 비기독교적 세계관의 남은 뿌리들을 점차 녹여냈다. 따로따로인 진주알 같은 창조에 관한 기사와 구속, 종말에 관한 기사를 묶어 하나의 이야기(진주목걸이)를 만드는 시도를 해 보았다. 그렇게 만든 거대한 이야기(meta-narrative)에 나라는 사람이 직장(가정)에서 행동할 모습을 묶어 놓을 이야기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해와 별, 달과 공기 등 모든 원소의 집합과 완전한 순환, 완벽한 먹이사슬을 이루는 동식물까지 아우르는 창조 세계, 거기에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개선할 부분을 찾고 더욱 아

름답게 변화시킬 마지막 단계를 창의적으로 수행할 그의 후계자(청지기)로 인간이 임명되었다. 그 인간 중 하나가 나이고, 비록 적은 부분이나마 분깃을 받았다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고, 여쭙고, 자신의 창의적 역량을 더해 낼 수 있을까? 그 행복한 상상도 잠시이고, 곧 이 세상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경쟁하고 더 많이 썰어려 무섭게 덤벼들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약육강식의 세계라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다. 눈앞의 현실과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사이를 채우는 고통, 그 상황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직장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언자의 삶을 살아 낼 수 있을까? 일의 작동원리가 되는 이야기를 바꾸어 놓으려면 하나님의 속성, 인간과의 관계, 세상을 향한 계획,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팀 켈러 목사님이 말했었다. 이 이야기에 나를 묶어 이 삶을 버텨나간다면 종말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결산 받을 것이고, 힘든 삶에서 얻은 경험들은 내 안에 어떤 형태로든 남을 거라는 소망이 나를 지켜 주기를 기도한다.



박은미 성도
(서초A공동체)

특별기고

꿈직했던 10월 7일, 테러 1주기

1년 전 2023년 10월 7일, 수천 명의 하마스 테러리스트가 이스라엘에 들어와 민간인을 공격했다. 약 1,200명의 유대인이 사망하는 홀로코스트 이후 최대 규모의 유대인 학살이 발생했다. 사망자 중에는 군인과 민간인, 남성과 여성, 어린이와 어른이 모두 포함되었다. 그들은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했다.

그 후 1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봤다. 가자 지구 상당 부분이 잔해로 변했다. 얼마나 많은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공습으로 사망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다. 하마스가 민간인 희생자를 과장하는 일로 악명이 높는데, 서방의 언론은 그 숫자를 빠르게 보도하고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마스가 민간인 사이에 전투원들을 숨겨 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타격하더라도 수천 명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하마스는 여전히 미국인 4명을 포함해 최소 97명의 인질을 붙잡고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더 많은 일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사방으로부터의 위협을 종식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호출기에 대한 조직적이고

위력적인 공격으로 레바논의 헤즈볼라 요원 수백 명을 무력화시킨 데 이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단체 지도부를 전멸시킨 일련의 ‘참수 공격’이 이어졌다. 현재 레바논 남부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군 침공과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보복 계획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난 한 해 이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요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 상황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다.

“이 세상은 원래의 의도된 모습이 아니며, 인간은 마음을 괴롭히는 악을 넘어서 진화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모두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악이 지속적으로 표현되는 것 중 하나가 여전히 우리 세계를 괴롭히는 반유대주의다. ‘나의 투쟁’이나 중세의 대학살에서 가져온 문구를 거의 편집하지 않고도 올해 대학 캠퍼스와 서구의 거리에서 시위대가 외친 구호와 일치할 수 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시리아 내전에서 시리아군과 러시아의 후원자들에 의해 수십만 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무슬림 강제 수용소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작년에 드러난 또 다른 사실은 비판이론이

학문적 이론과 문화적 분위기 모두에서 도덕적으로 파산했다는 점이다. 교차성이론, 특권, 해방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조건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결하지도 못한다. 정의와 억압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에 불구하고 비판 이론은 최근 역사상 가장 심각한 불의 중 하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1년 전 이 어두운 날에 종교적으로 편협하고, 여성 혐오적이고, 반과학적이고,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으로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집단이 남성, 여성, 어린이를 학살했다. 그런데도 많은 진보적 활동가가 이 단체를 옹호하는 이유는 하마스가 특권을 누리는 이스라엘인에 맞서 억압받고 힘없는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비뚤어진 미덕의 위계질서 때문이다. 누가 살인을 저질렀는지에 따라 대량 학살이 잘못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도덕적 틀은 전혀 도덕적 틀이 아니다.

10월 7일 공격의 잔인함은 진짜 악이 무엇인지 드러냈다. 우리는 인간의 사악함에 대한 관념이 낡은 것이고, 인류는 그 낡은 사고와 관행을 넘어 진화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꿈속의 이야기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충격적인 911 테러 사건처럼, 우리가 계몽된 시대

라는 생각과 그 사건을 일치시키는 방법은 없다. 프랑스의 지식인 베르나르-앙리 레비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가 20년, 50년, 80년 이상 전개해 온 모든 회피와 봉쇄의 전략, 양심의 속임수, 모든 매혹적인 수사학이 모두 이 사건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다. 악이 거기 있었다. 순수한 악, 노골적이고, 무의미하고, 무분별한 악이었다. 아무 이유도 원인도 없는 악, 꾸밈없이 날것 그대로의 악이었다.”

서구 사회는 오래전에 인간의 조건에 대한 기독교적 비전을 버렸을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공포는 그 순진함을 깨닫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악이 마지막 승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선포한다. 유대 민족의 조상이 선포한 것처럼, 온 땅의 심판자가 계시며 그분이 옳은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

/ 존 스톤스트리트(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브레이크포인트 진행), 팀 패짓(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신학자, 역사신학 박사)

원문: breakpoint(20241007)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11월부터 연말까지 온누리교회 모든 순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주제로 '열린순예배'를 드린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아주 특별한 전도의 장(場)이 펼쳐진다. 전도사역본부와 공동체사역본부가 주관한다.

열린순예배는 온누리교회 모든 순이 그동안 순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을 찾아 초대해서 식사하며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대상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축복의 자리다. 이에 대해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는 "한 영혼을 예수님께 초대하는 이보다 귀한 예배가 없다"면서 "열린순예배는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예배"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여성민 목사와의 일문일답.

/ 홍하영 기자 hha0@onnuuri.org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열린순예배'

11월부터 연말까지 아주 특별한 친구 되어주는 자리



11월부터 연말까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주제로 열린순예배를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열린순예배가 무엇이고,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열린순예배를 이해하고, 그 유익을 알려면 먼저 순의 기능을 알아야 합니다. 열린순예배는 그동안 순예배에 여러 사정으로 잘 참석하지 않은 성도나 전도의 대상자를 찾아 순에서 그들의 사정에 맞게 순예배를 구성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순은 온누리교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본 회파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간의 교제'라고 정의했습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순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자, 성도들이 함께 신앙 생활하게 만드는 큰 선물입니다.

올해 온누리교회 표어처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동료 등에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가 열린순예배입니다. 전도대상자를 초대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맛보게 하는 게 목적이자 유익입니다.

11월부터 연말까지 온누리교회 모든 순이 열린순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전도대상자들을 모두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전도하려고 기도하던 전도대상자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이번 기회에 열린순예배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순예배에 초대하는 '열린순예배'가 11월부터 연말까지 이어진다.

열린순예배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공동체 사역본부와 전도사역본부가 함께 준비한 '열린순예배 <가이드북>' (하단 QR 참고)을 활용하면 더욱 즐겁고 유익한 열린순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인 잔치 비유를 통해서도 초대를 강조하셨습니다.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시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직 복음을 제대로 접하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열린순예배에 초대하십시오.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열린순예배는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기에 전도대상자들을 초대하는 것이고,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가진 행복을 전도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가 열린순예배입니다. 전도대상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좋은 음식점을 알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병원에서 병이 나왔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병원을 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만난 참 좋으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축복이 장(場)이 열린순예배입니다."

열린순예배에 대해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설렙니다. 그런데 열린순예배에 초대할 전도대상자를 선정할 때 고민되는 게 사실입니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전도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먼저 그동안 순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전도대상자입니다. 생각나는 사

람 모두를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린순예배에 초대하는 대상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 사람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면 누구라도 초대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열린순예배가 강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잔칫집에서 즐겁게 대화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는 가까운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는 아주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돌잔치, 생일잔치에는 나와 가깝고, 내게 귀한 사람을 초대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드는 사람들을 열린순예배에 초대하면 됩니다."

열린순예배가 전도대상자들에게 정말 따뜻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는 만남이 되기 위해서 순이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사역본부와 공동체사역본부에서 '열린순예배 <가이드북>'을 제공할 것입니다. 순에서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전국 잔치를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이면 충분합니다. 열린순예배 형식은 순예배와 동일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예배 모임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탄절 무렵 근사한 카페에서 커피 타임이나 식사 교제 형식으로 해도 되고, 전도대상자와 함께 공연이나 영화를 보고 대화를 이어가는 방식도 좋습니다.

온누리교회 열린예배가 새신자를 배려해서 다양한 연출을 하듯이, 열린순예배도 전도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하게 기획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처음인 전도대상자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도대상자들이 친근하고 은밀하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섬세하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습니다. 열린순예배 일정을 잡고 그날 오실 전도대상자들을 위해

서 한 주 전, 길게는 몇 주 전부터 기도하실 텐데, 당일엔 전도대상자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여서 언젠가는 그분의 마음이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원활한 열린순예배를 위해 열린순예배 <가이드북>을 제공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열린순예배 <가이드북>'에는 전도대상자들을 어떻게 하면 어색하지 않게 맞이하고, 어떻게 하면 주제에 맞게 열린순예배를 인도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입니다. 하나는 A타입(38분 예상)입니다. 열린순예배를 인도하는 순장님이 활용하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B타입(85분 예상)입니다. 전도대상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특별한 이야기'와 '복음 제시' (최고의 행복)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열린순예배 <가이드북>' 형식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열린순예배를 진행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를 그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간 것처럼, '열린순예배 <가이드북>'을 참고하시되 창의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전도대상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각 순에서 멋진 방법들을 실행해 주십시오."

이 중요한 열린순예배를 잘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해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열린순예배는 분명 즐겁고 행복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행사에만 몰두해서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행사 준비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그 무엇보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며 열린순예배를 기획할 때 성령님이 각 순에 무엇이 필요할지를 말씀해주실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딤후 4:2) 마음으로 열린순예배를 준비한다면, 물 떠온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놀라운 경험을 했듯이(요 2:9) 각 순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힘을 쏟을 때 순의 하나 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린순예배를 준비하면서 각 순이 기도로 마음을 합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린순예배 <가이드북>

크리스천을 위한 회복시리즈 1. 복음과 회복 2. 행복반과 '행복 QT'

성주명 장로, 성아나 권사가 제안하는

행복반과 '행복 QT'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한 마디가 얼마나 강력하고 큰 위로인지 새삼 깨달았다. 매 순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적용하는 과정이 '행복반'과 '행복 QT'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회복이 바로 이것임을 배웠다. 성주명 장로(이하 성)와 성아나 권사(이하 아나)가 이야기하는 회복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것이었다. '행복반'과 '행복 QT'로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는 그들 부부에게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복 방법을 물었다.

/ 김남원 부장, 홍하영 기자



복음으로 인한 회복이라는 그 놀라운 일을 '행복반'에서 경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주명 장로(이하 성): “회복 방법은 다양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집중 기도를 통해서, 치유 집회를 통해서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백함으로 나음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약 5:16). 7~12명 모이는 소그룹에서도 회복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그룹의 효과가 몇 주, 몇 개월 못갑니다.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지원그룹을 찾는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2013년 시작된 과정이 '행복반'입니다. 행복반은 회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며 회복을 경험케 하고자 '행복 QT'를 도입했습니다. 행복반 참가자들은 <뒤늦게 찾아온 행복>(성주명 저, 두란노)이라는 교재를 바탕으로 매주 2시간 정도 나눔을 합니다. 본문을 읽고 일주일 동안 '나 들여다보기'를 하면서 자기를 성찰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상처와 아픔, 현재의 문제들을 솔직히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선입관이나 오해 등을 풀니다.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하나님께 전이되어서 조건적이고 가혹하고 무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 또는 침묵하시고 능력이 없고 무관심하신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면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메시지, 사탄의 꾀계에 대항하는 영적 전쟁을 통과하며 부모의 부정적 영향력 등에서 자유로워지고 회복을 경험합니다.”

행복 QT는 어떻게 하고, 행복 QT가 회복으로 나아가는 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성아나 권사(이하 아나): “행복 QT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두 통로로 듣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으면서, 또 다른 하나는 인물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이 '행복 QT'입니다. 행복 QT를 적용하려면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마음 상태, 행동들, 관계 등을 삶의 모든 영역(가정, 일터, 교회, 사역, 국가, 재정 사용, 은사 활용 등)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부정적이고 잘못된 감정이나 생각을 먼저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행복 QT 적용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성령님께 내가 최근 남을 비판한 말이나 생각들을 떠올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어떤 집사님이 말로는 안 했어도 마음에 업신여긴 적이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나도 똑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4절에 “남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님께 “나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전 어떤 분이 나를 섭섭하게 한 말이 계속 생각났는데, 성령님이 그분을 이해하는 마음이 들게 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고 선포했습니다. <시편> 106편 25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게 없는지 점검하며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는 성령님이 그 원인을 알

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과 15장 7절에서는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접하면서 성령님께 회개할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들, 남에게 상처 준 일이 없었는지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회개할 행동들이나 남에 대한 미움, 분노 등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는 근심과 두려움이 많고, 감사와 찬양이 부족한데 성령님 제가 왜 이런지 알려주세요. 무엇을 두려워하는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의 상처, 부모에게 들은 거짓 메시지를 알려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다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반드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행복 QT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현재 내 삶에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낮은 자존감, 우울증, 죄책감, 시기, 질투 등 마음의 문제들도 성령님이 보게 하시고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행복 QT를 계속하다 보면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들이 쌓이지 않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해결해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회복이 평생 이뤄집니다.”

행복반에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 열매를 나눠주십시오.

성: 40대 C형제는 자신은 늘 옳고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심하게 화를 내고, 절충이나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습다. 그 결과 아내가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아이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C형제가 행복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함을 깨닫고 인정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동안의 광포함을 세세히 기억나게 하였고, 그 형제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눈물로 긴 글을 쓰고 몇 주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산책하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산에 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50대 후반 K형제는 응석받이로 자라면서 필요한 훈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안이 유복해서 과하게 받은 용돈을 유흥과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했는데, 직장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도박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줬습니다. 그 일로 아내가 떠났는데 도박을 끊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시원 생활을 시작했고, 그 경비마저 누나가 대주었습니다. K형제가 행복반에서 훈련받으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최근에는 야간 신학대학원에 진학했고, 도박으로 고생하는 지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B형제는 30대 초반에 직장 동료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부터 시부모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가정부 취급을 받으면서도 두 자녀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강행했고, 자녀들마저 빼앗겼습니다. 극심한 우울에 시달리다가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행복반에 온 그 자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 남편과 시부모를 십자가 아래에서 용서하고, 자신을 묶어온 족쇄를 풀었습니다.”

회복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궁극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나: 행복 QT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순종할 때까지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가 계속 불순종하고 거역해왔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나를 용서하시면서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이 체험을 계속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돕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복을 원하고 치유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이나 상처를 감추기보다 인정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원리와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의 제사(히 13:15)를 올려드리십시오. 50년 만에 오던 희년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매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아픈 과거를 재활용하십시오. 우리가 아픈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픈 과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나: 하나님은 인생 끝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대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시선은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고, 나에 대한 그분의 생각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그분의 손길은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묵상하는 일보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감사와 기쁨, 평안을 채워 주십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 결코 사람의 손이 아니다!

“지인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제가 그럴만한 사람인지 스스로 의문이 들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둑은 9개의 화점을 포함해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약 360일을 1년으로 보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총 361곳에서 흰 돌과 백 돌이 접점을 보이며 변화무쌍한 수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바둑에 우주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고 칭송했다. 바둑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놀이로 그동안 여겨져 왔다. 하지만 지난 2016년 3월 9일 이런 기사가 올라왔다. ‘D-day 충격의 알파고, AI가 인간을 이긴 날’. 바로 이날은 답마인드라는 회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가 인간 대표로 출전한 이세돌 9단과 바둑 대결에서 승리를 거머쥔 날이었다. 이 알파고와의 대국을 기점으로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에 관심과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해서 당시 알파고보다 훨씬 뛰어난 인공지능 컴퓨터가 개발될 것이다. 사람과 컴퓨터 간의 격차가 더욱 선명하게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었다.

“과연 과학의 발전 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이 컴퓨터보다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 지표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모른다’를 인정하는 반응 속도일 것이다. 가령 우주여행을 해본 적 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우주여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한다면, 그 답을 우리가 연산하고 결정짓는 도출하기까지 일

의 모름, 할 수 없음, 무기력함에 대한 자기성찰의 결과를 소망으로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사순절도 ‘재의 수요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서 ‘재’는 말 그대로 물건을 태우고 남은 재, 가루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창 3:19)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자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갈망할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즉, 우리는 태생적

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가 묵상했던 <호세아서>의 키워드가 무엇인가? <호세아> 6장 6절에 담긴 메시지이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호 6:6).

더러워진 고멜의 삶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결코 사람의 손으로 드러지는 그럴싸한 제사나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호 6:1)”.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우리를 고쳐 주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전하면 된다.



최대홍 목사
(요셉청년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마의 시간이 걸릴까? 아마 질문을 다 듣기도 전에 연산을 끝냈을 것이다. 이처럼 인간이 기계보다 유일하게 빠르고 낮다고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아마도 ‘모르다’를 인정하는 반응 속도’일 것이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철학이 시작되었고 신학도 생겨났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성경도 인간

으로 불완전한 존재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롬 3:10)는 바울의 선고가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선고인 것이다.

따라서 나에게 있는 가능성으로 성공적인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조차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을 주심에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다.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Not I but Christ’ 나의 나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부부 사이에 돌아올 수 없는 잘못

결혼 관계가 금이 가고, 깨지는 것은 매우 큰 고통이다. 오랜 기간 사랑을 찾아 헤매던 남녀의 마음에 기적적으로 사랑이 찾아와 떨어져 살 수 없다는 고백과 맹세를 근거로 남녀가 결혼한다. 남녀의 전인적 결합은 놀랍고 신비롭고 상상을 뛰어넘는 행복감을 경험하게 한다. 이 땅에 홀로 거하는 존재가 아니라 또 하나의 반쪽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극치의 감정을 맛보게 한다. 오랜 기다림과 맹세, 결단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 된다. 상처로 찢어졌던 피부가 시간이 지나 하나로 회복되듯, 부부는 결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관계가 된다. 그런데 하나 된 부부가 여러 부정적인 이유로 나뉘게 되면 최고의 기쁨과 반대되는 최악의 고통을 경험한다. 피부가 찢기고 그 안에 있는 조직들을 도려내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 부부는 하나 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분열되고 나뉘는 것은 서로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기 때문이다.

부부가 극단으로 가지 않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결혼 관계에서 부부는 서로에게 크고 작은 잘못을 한다. 미안하다는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다. 부부는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너무 극단적인 잘못을 하면 용서를 주고받기

가 무척 어렵다.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된다. 방향이 틀어진 것 같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행동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잘못을 하는 것을 극히 경계해야 한다. 돌아올 수 없는 잘못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가짜 친밀감을 경험하지 말아야 한다. 결혼 언약을 맹세한 부부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마음에서 다른 모든 이성을 떠나보내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 그 어떤 이성이라도 머무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된다. 다른 이성과 마음이 맞닿은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이를 정서적 외도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육체적인 외도만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고, 위로를 주고받는 관계라면 이미 위험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남녀 관계는 원래 위험할 수 있는 관계인 것을 기억하는 게 좋다. 자신의 마음에 어떤 이성이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지 늘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상상 가운데 다른 이성을 초대해서 가짜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진짜 친밀감을 경험할 대상은 배우자여야 한다. 가짜 친밀감을 진짜인 것처럼 인식하면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허상이 드러나게 된다. 가짜 친밀감 혹은 순간의 친밀감이라는 허상에 서 벗어나야 한다. 마음이 요동치는 기간이 있

을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서적으로 취약해지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 배우자와 어렵고 결끄러운 시간을 보내는 구간이 있을 수 있고, 부부 사이에 토네이도 같은 폭풍이 휘몰아치는 시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곤란하고 괴로운 시간을 지나더라도 자신의 눈을 다른 곳에 뒤서는 안 된다. 폭풍 같은 시간도 결국 끝이 있다. 너무 괴로운 유혹의 시간도 인내하며 기다리면 지나가게 된다. 폭풍 같은 유혹에 자신의 마음을 내던지지 말아야 한다. 가짜 친밀감을 맛보는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부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둘째, 극단적인 재정 유용은 돌아가기 어려운 행동이 될 수 있다. 가정경제가 흔들릴 위험이 큰 투자 혹은 재정 집행을 할 때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큰 상처를 주는 행동이다. 그 규모가 클수록 부부 관계의 신뢰가 깨질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부부는 재정 사용에서 서로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의 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으로 함께 가계부를 점검해야 한다. 수입에 비해서 지나치게 큰 금액을 사용하면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고, 독단적 지출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배우자를 설득할 수 없고, 배우자가 동의하지 못한 재정 항목이라면 멈추거나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큰 수익을

기대하며 배우자 몰래 하는 무리한 투자는 부부의 신뢰를 깨뜨리는 잘못된 행동이다. 서로 합의할 수 없으면 멈추고 기다리는 게 옳다. 가정을 파괴할 정도의 재정 유용은 돌아올 수 없는 잘못이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배우자에게 무관심한 것도 돌아가기 어려운 행동이 될 수 있다. “당신과 결혼 생활 하면서 나는 늘 외로웠어”, “행복한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어”라는 말을 남기며 배우자를 떠난 사람도 있다. 배우자의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무관심이 지속하면 미움이 되기도 하고, 증오가 되기도 한다. 앞서 말한 가짜 친밀감을 맛보는 장소로 쉽게 떠나게 만들기도 한다. 서로 무관심이 오래되면 결혼 맹세의 열정이 급격히 말라 버리고, 결혼의 끝을 생각하게 된다. 관계를 되돌리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최소한 ‘이 순간 배우자의 마음이 어떨까?’ 정도는 생각하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사랑해서 결혼한 당신에게> 저자)

맛있는 말씀 해설

“...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호 1:2)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상징적 행동으로 계시의 말씀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셨다(호 1:2).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하나님은 고멜이 낳은 자녀들을 “이스라엘(하나님께서 흠으심), 로루하마(용서하지 않음), 로암미(내 백성이 아님)”로 부르게 하셨다.

음란한 여인 고멜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북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었다. 호세아의 결혼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계시의 도구가 된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결혼했음에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의 아이들을 낳은 고멜을 보는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남편과 자녀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 집을 나가버린 고멜에게 호세아는 절망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녀가 된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한다(호 3:1). 호세아는 고멜을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몸값을 치르고 집으로 데려온다. 고멜의 몸값을 치렀다는 것은 그녀가 자유인이 아니라 종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호세아는 고멜을 값을 치르고 다시 부인의 신분으로 회복시켰다.

호세아는 비참한 처지의 그녀를 구원해서 다시 부인으로 데려오면서 그녀에 대한 사랑을 회복한 것 같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호 3:3)”라고 말한다. 호세아는 남편에게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남자를 떠돌았던 고멜에게 아내로서 영원히 자신과 함께하자고 말하지 않고, “많은 날” 동안 그렇게 하자고 말한다. 고멜이 자유인으로서 자신의 의지로 하루 하루 헌신한 아내로 살면 그날이 많아질 거라

고 권면한다. 또한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라고 하면서 일방적인 명령이 아닌 상호 간의 약속으로 표현한다.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은 패역하고 음란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면서 자신도 음란한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녀를 회복시키는 남편이 되었다. 아마도 호세아는 이 과정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공감했을 것이다.

호세아가 고멜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회복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고멜 자녀들의 이름이 회복될 것을 미리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흠으신 사람(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고 용서하지 않을 사람(로루하마)을 다시 용서하시고, 내 백성이 아닌 자(로암미)를 다시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호 1:11, 2:1, 23).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지만, 이 소망의 약속을 계속 품고 있었다.

호세아에게 결혼은 하나님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큰 고통과 절망을 가져왔다. 그러나 다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경험했고,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소망을 보여주었다. 그의 삶은 기구해 보이지만, 순종의 열매가 크고 강력했다. 말씀에 순종해서 호세아처럼 사는 것이 일방적인 희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호세아 개인에게도 진정한 회복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셨다.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경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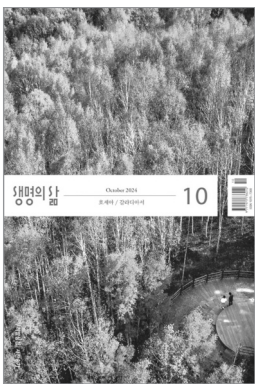


이은일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는 삶

10월 28일~11월 3일
〈갈라디아서〉 5:1~6:18,
〈시편〉 62:1~64:10



10월 28일~11월 3일
〈갈라디아서〉 5:1~6:18,
〈시편〉 62:1~64:10

묵상포인트 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방종과 다르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자유로 서로를 섬기며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가능하다.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묵상하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자유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한다.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가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 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며,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사랑을 비롯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묵상포인트 2: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한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도 십자가의 중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의 특권을 일깨운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에 담긴 복음과 복음의 삶에 대해 묵상하자.

▶바울은 성도들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그들 자신도 시험받지 않도록 살피라고 한다. 성도는 서로 짐을 지며 사랑의 법을 이루고, 각자 자신을 살피며 자기 짐을 져야 한다.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무엇에 심든 그대로 거둘 것이기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해야 한다. 거짓 교사들은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 할례를 강요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묵상포인트 3: 〈시편〉 62~64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추격하는 대적들, 목에 칼끝을 겨누는 원수들로 인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한다. 그의 호소에 담긴 믿음의 시선과 소망의 미래를 묵상하자.

▶〈시편〉 62편은 대적들의 공격으로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흔들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고백하는 시다. 〈시편〉 기자는 반석, 구원, 요새이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랄 때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시편〉 63편은 시편 기자가 원수들에게 쫓겨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기도시다. 그는 황폐한 땅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원수들의 결말을 확신한다.

〈시편〉 64편은 원수들의 공격에서 구원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시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악인들의 독한 말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즐겁게 자랑할 것이다.

-적용을 위한 가이드

▶바울이 ‘육체의 일(행위)’과 ‘성령의 열매’ 목록을 나열한다. 내가 버릴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버리기로 다짐하자. 또한 성령의 열매 목록 중에서 내게 더 필요한 것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며 힘쓰자. ▶어려움을 겪는 지체를 위해 내가 사랑으로 함께 져야 할 짐이 무엇인지 살피고,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내가 더 자랑하는 것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자.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입김보다 가벼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의 구원을 소망하자.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시다. 억울하게 비방과 조소를 당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자.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남편 김현준 집사를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예쁜 7살 딸과 5살 아들을 키우며 정말 열심히 살아가던 저희 신랑 김현준 집사가 9월 25일 아침 7시경 출근길 지하철에서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졌습니다. 우측 시상에서 시작된 다량의 출혈이 뇌간까지 퍼졌고, 뇌와 신경 상당 부분이 손상됐습니다.

담당 교수님 말씀으로는 신경을 다쳐 동공반사가 돌아오긴 힘들 것이고, 의식이 돌아오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현실이 절망적이고 암담하지만,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제가 믿음으로 이 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날개 아래 남편 김현준 집사를 품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를 통해 남편 김현준 집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 아빠를 찾으며 불안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참된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뇌출혈(뇌실내출혈)로 산재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모든 과정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 김미선 성도(강서공동체)

사회선교본부 창립 10주년을 맞으며

“내가 사랑하는 고아를 돌보라!”

하나님의 그 부탁에 순종하는 ‘제이흠’, ‘선한울타리’



오창화 팀장
(사회선교본부 선한
울타리)

명동 한복판 아름다운 이태리 식당에서 자정에 가깝도록 순예배의 나눔이 뜨거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모여 한 주간의 은혜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던 중에 내 옆에 앉아있던 만삭의 아내가 소리 없

이 의자 밑으로 떨어졌다. 잠시 뒤, 명동 뒷골목을 시끄럽게 뚫고 지나가는 앰블런스에서 의식불명 상태의 아내를 보면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도착한 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로 낯선 아들을 출산했다. 하지만 태중 태반 박리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아들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다. 늦은 오후 아내가 깨어날 때까지 아들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인큐베이터에서 여러 호스로 생명을 연장하던 아들이 하루를 살고 우리 품을 떠나 천국으로 갔다.

아들의 마지막 호흡이 멈춘 즈음, 나는 중환자실에서 통곡하다 쓰러졌다.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아들이 있는 천국을 내 눈앞에 보여 주셨다. 더는 바랄 수 없는 빛과 평안이 있는 곳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이 아들 온유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을 온전히 채우시고,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있음을 알게 하셨다. 모태신앙으로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막연하게 이해했던 나에게 천국이 그렇게 실체가 되었다. 사랑하는 아들 온유가 있는 천국에 나도 갈 것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다.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두 번째 집’

낯선 아들 온유를 천국으로 환송하고, 하나님의 여러 인도하심을 거쳐 다섯째와 여섯째 쌍둥이를 가슴으로 낳았다. 10살 터울 아들과 함께 쌍둥이 딸을 양육하는 행복이 넘치는 시간을 보냈다. 어느덧 쌍둥이가 일곱 살이 되면서 자신들이 입양되었고, 낳아준 생모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 나도 고아였나요?”라는 질문을 아내와 나에게 던졌다. 쌍둥이를 가슴으로 낳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아이들이 고아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당황했다. 그런데 맞다. 우리 쌍둥이가 고아였기에 아내와 내가 가슴으로 낳을 수 있었다. 내 사랑하는 딸들이 고아였다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인식함으로 내 안에 새로운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내가 후원하는 보육원의 많은 아동이 내 딸들의 형제자매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 이후 매일 ‘어떻게 하면 내 딸들의 형제자매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을까?’, ‘어떻



지난 6월 진행된 ‘제이흠, 선한울타리세미나’에서 배우 신애라가 입양과 위탁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게 하면 고아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의 가정이 자녀를 가슴으로 낳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입양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다.

2018년 초, 국회에서 ‘동성애 커플에 대한 입양 허용’을 포함한 입양법 개정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 일을 계기로 동성애 행위를 반대하는 여러 크리스천 입양 가족들과 함께 ‘전국입양 가족연대’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입양법이 온전한 법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시작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단체의 법률고문으로 있던 김미에 변호사를 국회의원으로 세우셨고, 여러 입양 가족과 함께 6년 동안 입법 활동을 통해 2023년 6월 입양특례법이 입양촉진법으로 개정되도록 허락하셨다. 더 많은 아이가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입양 촉진 정책이 포함된 법이 통과된 것이다. 할렐루야!

입양촉진법이 내년 7월 시행되면서 입양의 문턱이 낮아진다고 해도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자녀들을 일대일로 돌보며 사랑으로 양육시켜 줄 부모가 있는 건강한 가정이다. 이를 위해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에서는 2014년부터 입양 가족들이 모여서 입양을 홍보하도록 ‘J-HOME(제2홈)’이라는 부서를 설립했다. 제이흠을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40여 가정이 자녀를 입양했고, 서로를 응원하고 사랑하면서 입양과 위탁을 교회와 사회에 홍보하고 있다. 부모의 사랑이 절실한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두 번째 집을 선물하고 있다.

그 놀랍고 기쁜 일 ‘위탁’

대한민국에 몇 명의 아동이 매년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보육 시설에서 자라고 있을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4천 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분리되고, 그중에서 약 2700명이 보육원에 입소한다. 2700명 중에서 약 300명은 부모가 없는 입양 대상 아동이고, 2400명은 부모가 있는 위탁 대상 아동이다.

전국입양가족연대를 섬기면서 입양법 개정

외에 가장 최선을 다해 바꾸고자 했던 게 부모가 없는 베이비박스 아기들을 입양시키는 것이었다. 베이비박스 아기의 입양을 위해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필요할 때마다 방문해서 설득하고, 여러 방법을 모색했다. 2021년 8월 베이비박스 아기를 우리 집에서 일시 위탁하고, 관악구청에서 아기의 성과 본을 만들어서 입양기관으로 인도하는 입양을 진행할 수 있었다. 선하신 하나님이 베이비박스 아기들이 입양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셨다.

베이비박스 아기들이 위탁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고자 우리 집에서 위탁을 시작했다. 어느 날 아기를 내 가슴에 품고 새벽 수유를 하던 중에 하나님이 “창화야, 네 아들이다”라는 강한 감동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 저는 50세가 넘어서 입양 신청을 받아 주지 않아요. 입양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리며 사랑스러운 아기를 보고 있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창화야, 딱 하루 키웠던 낯선 아들 온유를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몇 개월을 양육하는 아기는 왜 너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마음을 주셨다. 맞다! 입양되기 전까지 몇 개월을 내 품에서 사랑을 주고받은 이 아기 가 어떻게 내 아들이 아니란 말인가! 그날 밤, 위탁하는 아기가 내 아들이 되었다. 그 아들의 사진이 여전히 집안 여기저기에 붙어있고, 사진을 볼 때마다 온 가족이 천국에서 만날 날을 소망하며 그 아들을 축복하며 기도한다.

네 명의 친생자녀, 두 명의 입양 자녀, 그리고 일곱 번째 아들을 잠시 위탁하며 키웠던 우리 가정에 DNA 손상으로 손톱, 발톱, 머리카락이 없는 여덟 번째 아들이 일시 위탁을 왔다. DNA 손상으로 장애가 있지만, 너무나도 씩씩하고 밝은 아들은 귀하고 아름다운 미국 가정으로 입양되었다. 몇 개월이었지만 깊이 사랑했기에 아들과 헤어짐이 참으로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가 위탁해야 함은 부모가 필요한 고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600번 넘게 간절히 부탁하며 명령하신 고아를 돌보는 온전한 방법이 입양이고, 위탁이기 때문이다. 우리 가정의 문을 열어야 한다. 헤어짐이 슬프지만, 내 헤어짐의 아픔보다 내

아들이 받을 유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아픔을 감당해야 한다. 아기들에게 부모의 사랑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그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사랑을 채워 줄 수 있다.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 대부분 현재 보육원과 그룹홈 등에서 양육되고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체험해 보지 못한 보육 시설 아동들은 가정을 소망하지 않는다.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들 또한 자립이라는 이름으로 홀로서기를 소망하지, 결혼과 자녀를 소망하지 않는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복을 누리는 우리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 역시 가정이다. 보육원 아동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과 결연해서 정기적으로 가정의 행복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는 동안 우리는 그들을 눈에 담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기도를 받을 수 없는 아기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는다면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가!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들과 월 1회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 교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도 온누리교회 울타리사역에서 하고 있다. 보육원 아동들과 가정 결연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열린울타리사역’과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들의 자립을 곁에서 도우며 기도하는 ‘푸른울타리사역’이 바로 온누리교회 울타리사역이다.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들을 입양하고, 위탁하는 ‘제이흠’ 사역, 보육원의 아동들과 결연해서 거룩한 가정을 체험하게 하고,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울타리사역(열린울타리, 푸른울타리) 모두 “고아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명령에 순종하는 사역이다. 생각해 보면, 고아들은 우리들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고아를 돌보달라고 성경을 통해서 부탁하신 것이다.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고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입양된 성도들의 거룩한 순종 말고는 없다. 그 간절한 하나님의 부탁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적 고아인 우리를 입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입양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고아를 돌보아 달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에 순종하는 ‘제이흠사역’과 ‘울타리사역’에 초대한다.

자립준비청년 장학금을 위한 후원계좌
573-910020-36505 하나은행

전도콘서트 아름다운 당신에게!

900여 명 참석, 수익금 '온사랑 합창단' 후원

전도콘서트 '강석우와 함께하는 가곡의 밤 아름다운 당신에게' (이하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지난 10월 21일(월) 저녁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올랐다. 이날 전도콘서트에서는 탠트 강석우가 해설 및 진행을 했고,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 소프라노 강혜정, 김순영, 바리톤 송기창, 이응광 등이 공연했다. 이날 성악가들은 강석우가 작사 작곡한 가곡 '4월의 숲속', '그리움조차', '밤눈', '가을 그리고 겨울', '이별의 시간', '시간의 정원에서' 등 11여 개의 가곡을 열창했다. 연주는 피아노 이웅, 클래식 기타 이미슬, 챔버 소나레 아키 등이 했다.

이날 전도콘서트 '아름다운 당신



사진은 지난 10월 21일 열린 전도콘서트 '강석우와 함께하는 가곡의 밤 아름다운 당신에게'.

에게'에는 온누리교회 성도, 목회자, 전도대상자, 음악인, 봉사자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연 수익금 일부는 발달장애 음악인으로

구성된 '온사랑 합창단'을 후원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오픈 특강 '아나운서처럼 말하는 법'

10월 21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오픈 특강을 개최한다. 前 KBS 이정민 아나운서가 '아나운서처럼 말하는 법'을 주제로 강의한다. 11월 8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점심 포함 오후 2시 30분)까지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진행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성도는 11월 7일

(목)까지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이다. 관심이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2-2182-9114
회비: 더생명나무
1005-180-711005
(우리은행)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온라인커뮤니티 문화 강연 'I Have A Dream'

10월 28일 오후 7시 JCC아트센터 콘서트홀

온라인커뮤니티 문화 강연 'I Have A Dream'이 10월 28일(월) 오후 7시 JCC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막 오른다. 최정주 권사(아트앤뮤지컬레이터, 이수공동체)가 꿈과 비전에 관한 그림과 음악을 소개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150명 모집한다. 티켓은 3만 원(2인)이다. 구매한 티켓은 당일 접수데스크

에서 수령하면 된다. 최정주 권사는 성도들에게 "이번 문화 강연 'I Have A Dream'은 명화와 음악을 통해 복음적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참석을 독려했다.

문의: 카카오톡 채널
'I have a dream'
채팅창



/ 박지혜 기자

일.하.세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11월 2~23일 오후 1시 온누리청소년센터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일.하.세 아카데미' 2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2일(토)부터 11월 23일(토)까지 4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온누리청소년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일.하.세 아카데미에서는 성경적

직업관, 성경적 성공관, 성경적 재물관, 성경적 문화관,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 일터신앙 등을 주제로 강의와 조별 나눔 등이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이나 QR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문의: 010-3488-5382



탁구인 맞춤형도집회 '핑퐁 in Love'

12월 14일 오후 2시

2024 탁구인 맞춤형도집회 '핑퐁 in Love'가 오는 12월 14일(토) 오후 2시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지하 1층)에서 열린다. 1부 탁구대회(오후 2시~5시 30분), 2부 식사 및 토크쇼(오후 6시~8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가 설교하고, 양영자 선교사(88년 서울올림픽 탁구복식 금메달리스트, 전 청소년 탁구 국가대표 감독), 가수 이무송, 색소폰 연주가 심상중, 가수 하다쉬 뮤지컬 게스트로 출연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카카오톡 채널 '핑퐁 in Love'에 문의하면 된다. 탁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회비는 2인 3만 원이다.

문의: 카카오톡 채널 '핑퐁 in Love'

전라북도로 떠나는 '창조과학 탐사'

11월 2~3일 전라북도 일대

창조과학선교팀이 11월 2일(토)과 3일(일) '창조과학 탐사'를 전북 진안 마이산, 전주 선교사 박물관, 김제 금산교회, 부안 채석강 등지에서 한다. '의료인을 위한 맞춤형 창조과학 탐사'도 병행한다. 의료인 맞춤형 탐사에는 의사, 약사, 연구원, 간호사 등이 참여한다. 두 탐사 모두 OBC 1학점을 인정해 준다.

문의: 010-3334-2388(성지순례) 010-7636-6305(의료인)

온누리교회 건축공사 감독관 구인

온누리교회 건축공사 감독관을 모집한다. 담당업무는 건축위원회 회의 진행, 공사 품질 관리, 안전, 공정, 예산 관리 등이다. 자격요건은 그리스도인, 건설 현장 상황 파악 및 조율을 할 수 있는 해당 분야 경험자다. 문의: 02-3215-3125

'색소폰앙상블' 회원모집

매주 수 오후 6시 30분 도곡캠퍼스 1층 꿈아이홀

양재온누리교회 '색소폰앙상블' 회원을 모집한다. 대상은 색소폰 연주(알토, 테너, 바리톤)가 가능한 성도이다.

색소폰앙상블 연습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도곡캠퍼스 1층 꿈아이홀에서 한다. 색소폰 전공 선생님이 지도한다.

문의: 010-5499-9941

/ 박지혜 기자

'파워임팩트(POWER IMPACT)' 11월 2일 개강

부모반, 청소년반 참가자 모집

11월 2일 청소년부모성장학교 '파워임팩트(POWER IMPACT)'가 개강한다. 참가신청은 11월 11일까지 아이스쿨이나 회복사역 홈페이지(recovery.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자녀와 그 부모가 대상이다. 회비는 청소년 1인당 12만 원, 부모 1인당 10만 원이다.

이번 '파워임팩트(POWER IMPACT)'는 11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도곡교육관 화평홀(청소년반)과 충성홀(부모반)에서 진행된다.

파워임팩트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부부 관계를 새롭게 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과정이다.

문의: 010-6476-0524

/ 박지혜 기자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0월 세례자			
■ 서빙고	최하영 장지수	엄덕용 윤정혜	입교
김용진 720913		윤은경 230721	김재우 881109
김혜상 970322	■ 양재	윤광구 방은혜	문석현 911130
문덕규 590102	김미경 721105		
이순자 490115	박수민 900404	〈대학청년〉	■ SNS
홍인표 450406	안세준 790220	■ 여호수아	박기성 820911
유아	이경옥 510223	강석현 941213	백주현 821019
김주아 220828	채연옥 600328	김혜원 960915	백진경 910322
김유환 이승연	유아	박준민 890819	신윤지 940112
김호윤 230311	김태규 230922	최정윤 840224	입교
김윤석 마은혜	김민석 장혜실	입교	김종빈 930308
이도현 230224	박하이 230926	강신현 920320	유아
이경빈 문지영	박승영 김현주	박수진 940623	류승현 220901
이예복 230914	양바론 231229	■ J4U	정소영 231025
이신재 권은진	양희석 윤지원	이규원 960726	염사랑 231025
최이안 210329	엄지현 220825	정다애 950322	염신복 서지선

전도폭발훈련 간증



/ 김미소 성도(분당 벨엘교회, 전도폭발훈련 37기)

일본일초가 소중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았지만, 언제부턴가 삶에 진짜 기쁨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삶에 딱히 문제가 없는데 왜 기쁨이 없는지 참 의아했다. 그 이유를 찾아 헤매고, 고민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지인과 의 대화에서 그 이유를 알았다. 내 삶에 전도의 열매가 없기 때문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전도폭발훈련(이하 전폭)을 알게 되었다. 전폭을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었다. 전도 훈련의 필요성이 매일 피부로 와 닿았기 때문이다. 친한 동네 엄마가 “너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교회 가면 뭘 하는 거야?”라고 묻는 적이 있다. 그순간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었는데,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다. 그날 이후 ‘만나는 영혼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가르쳐줄 수 있을까?’가 삶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그래서 전폭을 열심히 받아서 다시는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전폭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열망했던 전도 방법들을 값없이 가르쳐 주시는 현장에 갈 때마다 정말 기쁘고, 일본일초가 소중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고 싶던 사람들을 직접 찾아

가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행복했다.

전폭을 통해 전도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하기에 내 신앙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앙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줬다. 예를 들면 친구를 전도하려면 평소 관계를 더 잘 맺어놓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더 좋은 친구가 되려고 전보다 열심히 연락하고,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고, 그를 더 잘 대하려고 더욱 노력했다. 관계에 온 정성을 다했더니 그 친구가 예수님을 향해 첫 발걸음을 기꺼이 내딛는 일이 있었다.

전폭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복음 제시 전문 암기’였다. 1단계 훈련생으로서 복음제시문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전폭으로 두고 전력을 다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걱정과 일에 매이지 않게 모든 일을 수월하게 풀어주셨다.

하나님을 믿어도 삶의 기쁨이 없는 크리스천들에게, 전도하고 싶는데 방법을 몰라서 머뭇거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경험을 체험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전폭을 추천한다.

동역자가 보낸 편지



/ 김햇님 대표(소셜벤처 레베카)

“협력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누리교회 ‘2024 사르밧 프로젝트’를 함께 섬긴 ‘레베카’입니다. 레베카는 한동대학교에서 ‘한 몸 프로젝트’라는 비전으로 시작된 기업입니다. 한국과 미국에 본부를 두고 AI & Big Data를 통해 이웃을 섬기는 소셜벤처입니다. ‘레베카’라는 명칭은 성경에 나오는 리브가의 영어식 이름입니다. 리브가는 나그네가 마실 물을 청하자 그들의 낙타에게까지 마실 물을 제공했습니다. 배려와 사랑이 넘쳐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레베카는 최상의 먹거리를 공인 최저가로 제공하는 동시에, 수익금 전액으로 열방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텐트 메이커입니다. 레베카를 통해서 나를 위한 소비에서 끝나지 않고, 가난한 이웃까지 돌볼 수 있게 됩니다. 배려와 사랑이 넘쳐난 아름다운 여인, 리브가처럼 말합니다. 어려운 이웃과 성도에게 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온누리교회 사르밧 프로젝트에 협력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육의 양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전 세계에 성경책을 나누는 일에도 동참하게 됩니다.

한동대학교 한 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

작된 전 세계 300만 학교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전하는 일은 ‘학교에 하나님 말씀을 공식적으로 전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고민 끝에 ‘스쿨 바이블(School Bible)’을 생각해냈습니다. 학교에는 학교용이라는 의미로,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성경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전략이 여러 나라에서 효과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케냐, 과테말라, 필리핀 등지에서는 학교와 공인 MOU를 체결하고, 학생들에게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설명하고, 성경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전교생에게, 둘째 해부터는 신입생 혹은 특정 학년 전체에게 선물하는 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한말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성경 한 권을 병사에게 전하고 순교하셨습니다. 그 병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이 중심이 되어 평양대부흥까지 성장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오롯이 모여있는 학교에 하나님 말씀을 품어 있고 격조 있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에 동참해 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특히 사회선교본부 이웃사랑팀께 감사합니다.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참가자 간증



/ 심성진 성도(온라인커뮤니티, 루마니아 거주)

가뭇에 내리는 단비처럼!

남편의 직장 문제로 루마니아로 온 지 3년째다. 여기는 한국 교회도 없고, 한국 교민도 많지 않다. 그래서 고립된 채 살고 있다. 남편도 외국인이고 가톨릭 신자라서 신앙에 관해서 친밀하고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도 없다. 그래서 더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다. 유튜브로 교회 예배와 큐티 영상을 봤지만 그래도 영적, 정서적으로 메마른 느낌이 들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았다. 가장 목말라 있었던 것은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였다. 공동체의 친교도 그리웠다. 매번 혼자 기도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도 응답하신 건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알 수 없어서 답답했다. 훈계의 말씀도, 위로의 말씀도 잘 와닿지 않아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리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잘못된 것만 생각해서 우울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차에 온누리교회 같은 공동체에 있었던 친구가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이하 온라인커뮤니티)를 알려줬다.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참가 신청을 했다. 감사하게도 나와 같이

해외에 거주하는 성도들이 많은 플럭에 속했다. 대만, 태국, 일본, 멕시코, 한국 등 다른 나라에 살아가는 시차가 달랐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다. 온라인이지만,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이고 기쁨이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드리고 나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친교를 나눴는데 그간 쌓인 외로움으로 굳은 마음이 녹았다. 우리는 서로의 처지와 상황을 공감하고 위로했다. 메시지로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도 했다. 그 과정에서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다. 나를 포함한 수많은 멤버가 기도응답을 받아서 함께 기뻐하기도 했다. 나처럼 해외에서 섬기는 교회 없이 고립된 성도들에게 온라인커뮤니티는 가뭇에 내리는 단비처럼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서〉 2장 20-21절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교회를 이룬다고 믿는다.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뤄지기를, 하나님이 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도한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수료 간증



/ 권지혜 성도(영등포구로공동체)

엄마가 나에게 준 것은
‘믿음’

두란노어머니학교를 같이 하자고 권하지 않았다면 쉽게 도전하지 못했을 것 같다. 엄마가 소천하신 지 1년이 되어간다. 혹시 엄마에 대한 부분이 건드려질까, 내가 알지 못한 감정들이 있을까 약간의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미처 돌보지 못한 감정들이 있다면 마주 하고 싶은 마음에 용기 내 두란노어머니학교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그 생각들 때문이었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두란노어머니학교에 가지 않고 쉬는 날이 많았고, 가는 날 아침에는 변수도 많았다. 어렵게 과정을 이어가는 중에 신혼 초 아이가 없었을 때 두란노아버지학교에 참가해보라고 권하신 순장님이 떠올랐다. 아이가 없어도 두란노아버지학교에 참가하면서 많은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다.

아이를 못 가지다 연달아 세 아이가 생기면서 친정엄마랑 합가했다. 합가 이후 엄마와 많이 싸웠다. 15년이 훌쩍 지난 지금, 두란노어머니학교를 하면서 그 순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인 것 같다. 두란노어

머니학교를 하면서 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엄마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다고 머리로만 생각했던 말들이 마음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가슴이 먹먹했다.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 엄마가 네게 준 것은 믿음”이라고 하셨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유산을 남겨주신 엄마를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며 원망했던 과거가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로 기억되고, 어떤 것을 남겨줘야 할까? 내가 받지 못한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을 유산으로 주는 엄마가 되어야겠다.

두란노어머니학교는 ‘엄마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보고, 그동안 덮어두었던 우리 엄마를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었다. 귀한 섬김, 기도, 강의 등 모든 일정이 은혜였고, 위로를 받고 회복하는 시간이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모든 스태프와 향기님께, 그리고 우리 조원들에게 감사하다.

장로칼럼

인생은 다 때가 있다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나이테는 나무의 나이이다. 나무는 일 년마다 나이테가 하나씩 생겨 천년을 산다고 한다. 사람도 나무처럼 해가 바뀌면 나이를 한 살씩 더 먹는다. 시련과 역경을 거쳐서 이리저리 굽은 인생길을 걸어야 연륜이 생긴다. 연륜은 겪어온 성장과 고난의 세월이 나이테처럼 둥글어져 모나지 않은 상태다. 수천 년 바람과 파도에 둥글어진 바닷가 몽돌처럼 말이다.

시절인연(時節因緣)은 ‘모든 사물의 현상은 시기가 되어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친구나 연인관계도 유효기간이 따로 있다. 사람이 살면서 지혜가 자라 무엇을 ‘시작할 때’와 ‘물러날 때’를 알게 된다. 노련한 어부는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몰아치는 ‘물때’가 있음을 알고, 물이 들어올 때 바다로 나가고, 물이 빠지기 전에 물으로 돌아온다. 지혜로운 농부는 계절에 부는 바람의 밀도로 씨를 뿌리고 거둬야 할 때를 안다. 농부에게 주어진 짧은 순간을 놓치면 한 해 농사를 그르치게 된다. 겨울은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이는 계절 같지만, 농부에게는 내년 봄을 기억하는 일정이 있다. 묵가적 분위기의 가을 들녘에 다가올 계절을 내다보며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지혜가 따로 있다. 높은 산을 오르는 산악인은 오를 때와 물러서 내려올 때를 알아차린다. 빙점 이하의 온도에도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기업가는 잘못된 결정으로 실패하는 경우보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삶은 이처럼 ‘선택하는 철학자의 총합’이다.

100세 시대를 사는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은 정신적으로 늙지 않는 비결 세 가지는 여행,

사랑, 공부라고 했다. 틈틈이 여행을 통해 견문 지식을 넓히고, 주위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쉽 없는 공부로 시대 흐름을 읽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더 많이 공부하고 성찰해야 간신히 어른이 되는 듯싶다. 하지만 나이 들어 터득한 지식과 경험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하면 타인의 말에 귀를 닫게 된다. 흰머리와 얼굴의 주름살이 나이 듦의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이를 들먹이지 않고, 나무처럼 속이 깊어 새기면서 울긋불긋은 어른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봄날의 나무처럼 새싹을 틔우고, 해마다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다. 지금 눈앞의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자신의 지평을 꾸준히 넓히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는 어른, 그런 인생으로 늙어가는 것이 아닐까?

최정재 시인은 “나이가 들면 아는 게 많아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알고 싶은 게 많아진다. 나이가 들면 무조건 어른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른으로 보이기 위해 항상 긴장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편해질 줄 알았는데 더 많이 공부해야 하고, 더 많이 이해해야 하고,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했다. 그것도 끝없이 끝없이!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짙은 향기보다 은은한 향기가 좋다. 폭포수보다 잔잔한 호수가 좋고, 화통함보다 그윽함이 좋다. 또렷함보다 아련함이 좋고, 살가움보다 무던함이 좋다. 질러가는 길 보다 돌아가는 길이 좋다. 여름 때미의 시간이 가을 귀뚜라미의 시간으로 바뀌는 건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그 시간을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깊어져 가는 거다. 가을은 누구에게나 급하게 달려온 인생을 잠시 쉬어가는 계절이다. 이 시절이 다가기 전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꿈을 꾸는 이유를 자신에게 오롯이 물어보면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으로 울긋불긋 살아가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함께 미디어 선교, 담대하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진국 대표
(CGN)

19년 전, 작은 선교 방송으로 시작한 CGN이 오늘날 세계를 품은 미디어 선교의 등불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후원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후원자들의 헌신이 CGN의 모든 발걸음에 든든한 날개가 돼주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여정과 수많은 도전 끝에 완성한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 이스라엘을 포함해 6개국을 누비며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복음 전파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전문가들로부터 “기독교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는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을 넘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선교 사명의 본질을 일깨우는 영적 나침반이 됐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 기독교 OTT ‘풍당’은 고도화 과정을 거쳐 4만여 편의 풍성한 콘텐츠로 전 세계 영혼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AI 실시간 번역으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고, 24시간 해외 채널을 추가해서 ‘어디서나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플랫폼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더불어 전 세계 6개국(미국,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프랑스)에 세운 CGN 해외 지사는 언어권별 미디어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현지 맞춤 복음 콘텐츠를 제작해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개최된 ‘제4차 로잔대회’는 주관 방송사로서 CGN의 미디어 선교 비전과 성과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이를 통해 CGN이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누구보다 앞서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혁신적인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후원자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후원자가 아닙니다. CGN의 영적 동역자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실질적인 동반자입니다. 상업광고 없이도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신실한 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CGN이 창립 20주년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한계 없는 도전으로 미디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온 CGN은 ‘선교의 내일을 더하다, CGN’이라는 슬로건 아래 더욱 담대하게 선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년에 CGN 2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네임리스: 이름 없이, 빛도 없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세상의 명예나 영광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달려온 CGN의 진정한 정체성을 조명할 예정입니다. 또 일본 선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선교적 삶의 감동을 전하는 ‘오! 마이 박스’는 인도를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해외 지사와 함께 남미와 아프리카로 사역을 확장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선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CGN은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라는 횡대를 향하여 쉬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빛을 올리고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후원자들의 한결같은 동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마지막 영혼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CGN을 통해 이루실 새로운 기적의 여정에 후원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앙에세이



김현실 목사
(수원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 수원캠퍼스가 지금 예배드리는 곳을 허물고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시작한다. 새 예배당이 완공될 때까지 주중에는 ICT밸리에서, 주일에는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린다. 온누리교회 수원캠퍼스 성도들은 새로운 예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곧 떠나게 될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했던 시간을 그리워 할 것 같다.

매주 수요일 오전, 여성예배를 드리기 한 시간 전부터 이미 로비에는 커피 향과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여성예배를 위해 기도하러 오신 90세, 87세, 85세 삼총사 권사님을 중심으로 삼

삼오오 모여 서로 안부를 묻고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온누리교회 수원캠퍼스 삼총사 권사님들은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중보기도와 주방 봉사, 장례 섬김 등 수많은 사역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계신다. 사역하면서 함께 울고 웃으며 오랜 세월을 함께하니 동지애가 생긴 것 같다. 여성예배를 드리고 나서 후배 권사님들이 종종 삼총사 권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고, 나들이도 함께 다닌다. 후배 권사님들이 선배 권사님들을 섬기는 사랑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모른다.

한 번은 여성예배를 드리고 나서 리더십들이 헌물한 감사의 떡을 성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었다. 그때 삼총사 권사님 중 한 분이 “떡 하나 더 주세요”라고 말씀하셨다. 그 권사님이 떡을 하나 더 챙기는 이유가 있었다. 연로하고, 몸

이 불편해서 여성예배에 오지 못하는 권사님들을 찾아가 함께 나눠 드시며 말동무하려는 것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삼총사 권사님들이 회비를 내서 후배 권사님들의 경조사를 챙기고, 가끔 맛있는 차를 사주신다. 선배 권사님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공동체를 더욱 따스하게 만들고 있다. 후배 권사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워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 이루어 가는 것 같다. 교회에서 서로 둘러앉아 안부를 묻고, 신앙을 나누는 모습이 오래 끓인 곰국 같은 ‘사랑의 진국공동체’를 만든다.

요즘 세대는 혼자 하는 게 매우 익숙한 것 같다. 편안한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전자레인지에 3분이면 간편하게 조리되는 컵밥, 끓는 물을 부어 1~2분이면 완성되는 컵라면 등으로 즉석에서 간단하게 한 끼 해결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 또한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버리는 것에 익숙하다. 나를 내어주고 헌신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동료와 함께하는 것을 귀찮아하면 결국 홀로 남겨지게 된다.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공동체는 시간과 공간을 함께한다. 같이 있기 위해 시간을 마련하고, 마음을 내어줄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다.

온누리교회 수원캠퍼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옛 모습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선배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셨듯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삼총사 권사님과 아름다운 공동체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영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분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신동아 쇼펍센터 3층(302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010-5766-446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사랑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홍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청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사랑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한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일본어예배부(02-3215-3702)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B1 시온홀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온누리M미션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 / 러시아어
예배 12:00 신동아 2층 믿음홀 / 몽골어예
배 14:00 선교관 101호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달 첫 주만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3:00 온누리청소년문화
센터 4층 강의실1

인천 온누리M미션
모자이크예배 14:00 3층 소망홀

안산M센터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지하 Onnuri Hall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베트남어예배 10:30 301호 / 아랍어예배
12:00 2층 Library /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4층 Manna Hall / 우즈베키스탄
어예배 14: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3층 Startree / 중국(청장년)예배
11:00 4층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년부 12:30 302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팡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
화 예꿈 11:00 지하 Dream Kids Room

김포M센터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몽골어예배
17:00 706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다문화 파워
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
팡 11:00 705호

군산M센터
ANEWS예배 11:00 1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1:00 102호

남양주M센터
네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4호 / ANEWS
예배 11:00 301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304호 / 힌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3:00 306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분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
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화성M센터
네팔어예배 11:00 202호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1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홀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체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을
문의: 010-5250-1233

CMN 라파티م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티르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TP44기 단기선교사 훈련생 모집
기간: 12월 30일~2025년 1월 24일
장소: Acts29비전빌리지
접수: www.visionvillage.org
마감: 11월 29일까지
문의: 031-331-818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영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영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쁨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
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560-005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비전홀B
문의: 010-6422-8376

CMN 토보티م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
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CMN 시온팀 의료진 모집
모집: 치과(사역 시작 9월)
내용: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균 팀장(010-3388-5331)

CMN 마노아팀 의료진 모집
일시: 10월, 11월 셋째 주일 오후
*11월 17일 평택 인도네시아 예배
분야: 산부인과 진료(여의사) 1명
문의: 류기선 팀장(010-2468-2755, 문
자 먼저 연락)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1, 3주 주
일 연습은 10월부터 재개)
장소: 서빙고 온누리청소년수련관 청소
년프로그램실(3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김미현 010-8285-6435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5부 7:00(온라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
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
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
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세종교육관
분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분당 / 6:00 세종교육관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
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
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
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15.3521

토요가족예배 10:30 B2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09:00 B2 분당 / 2부 11:30 B2
분당 / 3부(대학청년) 16:00 B2 분당 행복한하나예
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외국어예배 중국어예배 14:00 B1 소예배실 / 힌디
어예배 토요일 19:00 남양주M센터 301호 / 네팔어예
배 토요일 19:00 남양주M센터 301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2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분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3F 꿈아이홀 / 유치부
11:30 3F 꿈이들을 / 유년부 11:30 2F 드림홀 / 초등
부 11:30 4F 비전홀 / 중등부 11:30 교육관 3F 믿음
홀 / 고등부 11:30 교육관 3F 소망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
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
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텐
젤라홀 / 초등부 11:30 길보튼홀 / 중등부·고등
부 11:30 박도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도세홀/ 금요
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2부 11:3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14:30 백향목홀(3층), 꿈팡(초등부)
11:30 알렐루(2층), 꿈팡(유년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텐젤라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분당 / 2부 11:25 분당 / 3부 14:05 분당

대학청년(주일) 16:00 분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분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
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
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분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대학청년 16: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
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분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분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분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00 사
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분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분당

새벽예배 오전 6:20 분당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용산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피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8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생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사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6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6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클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6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Higasisinsaia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mi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관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 위임목사

이재훈

● 국내 온누리교회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감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상규 김선재 김재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완 김영배 김오성
김용민 김용산 김유식 김은혜
김재식 김재승 김재호 김중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광
김태웅 김태완 김찬국 김현실
김홍주 김규석 노치형 노희태
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준 박천중 박형준
배형삼 배성우 배진우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 송동주 송재호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오현규 유진아
유현록 윤래아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철 이진기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영선 정한호
정현석 정화성 제지은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진삼비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종현 최희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카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충희 하원희
황신연

● 전도사(전임)

민근홍 박성원 박성훈 신대중
신주용 송예찬 안대진 유성하
이상욱 이호준 이형목 임동현
장지훈 조은광 주하늘 황유일

● 부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권준환 권영선 권용성 권용한
권철준 김경선 김광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열 김명종 김명철
김명훈 김상섭 김석인 김선래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병철
김용산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진숙 김종균 김중영 김대주
김혜경 네트라 김재욱 김중선
박씨마 백승현 비 킬 서영철
생애애 안환균 양현수 윌엘세이
윌리엄 에릭 마이클 스티븐
이민영 이상은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윤치연
장광석 정옥진 정요한 제인랑
존콰이스 최정현 최정현 황연신

● 전도사(파트)

강귀웅 강영주 강하람 강현구
강우리 구길모 권예람
권평화 김가희 김기태 김도모데
김동규 김동우 김만순 김미리
김민수 김소영 김소영 김에달
김예찬 김요셉 김지선 김진희
김태현 김한은 김홍미 나가노
마사도 남 해 박요한 박유진
박 성 박성훈 방예린 방진아
박은혁 박의력 서혜진 손우열
서예찬 서혜진 손우열 엄경덕
송선애 심은섭 안류택 우승희
오성광 오성민 오예원 우송호
우진실 우진현 유석현 윤종연
윤길문 윤석무 윤주현 윤종연
이난단 이도열 이동준 이미진
이민규 이반석 이선혜 이소라
이수근 이웅대 이창로 이준경
이재호 이재준 이재호 이경근
이중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현영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정하 전경무 손태용
정도영 정문규 정병규 정보보
정순풍 정영원 정희택 정재택
정재원 정영재 정희태 정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파주
정희원 조창현 조희동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구 차준한
전영민 최도성 최재민 최 명
최상근 최진석 최창규 최정수
최종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근주 한태준 한백진 한영희
한종태 한창적 한희식 함공식
함선호 허광수 허형석 호종일
홍기범 홍태표 홍범식 홍종철
홍정수 홍해남 홍영호 황오
황의서 황재규

● 사역장로

강경국 강기석 강영재 감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두환 권영선 권용성 권용한
권철준 김경선 김광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열 김명종 김명철
김명훈 김상섭 김석인 김선래

● 시무장로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신익 강은철 강종도 강창재
강대욱 강은철 고길범 고창태
곽병철 곽진성 권오습 권오혁
권혁은 금세종 김경돈 김경학
김동원 김광준 김기섭 김기영
김동원 김명현 김병국 김병국
김갑갑 김민찬 김병순 김병국
김성균 김성종 김상진 김성철
김성훈 김승국 김신원 김영관
김정원 김정민 김정철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상진 김성철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영호 김우호 김이준 김인선
김정원 김정민 김정철 김진민
김종완 김중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용 김지학 김지현
김지훈 김창원 김창원 김창원
김철주 김해기 김한주 김형겸
김형석 김형중 김화선 김화선
김화선 김화선 김화선 김화선
나 영 나영옥 남명현 남상길
남윤환 남정진 남주인 노경환
남기훈 남희준 남상원 류기범
명연찬 문성찬 문영기 문정식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대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이승규 이광만 이원로 이희상
박성용 정광택 정성진 지성한
장수택 최창길 홍순직 황용식

● 반주자

강영우 강예은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혜 김은경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경주 김지민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진희
김현정 김현주 김효종 남궁진
남민우 남예셀 노보라 노성희
노소라 도은경 문은영 문예지
문희정 박선희 박아령 박오셀
박윤진 박지훈 박주영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지연 안호진 안희준
오주영 우영진 염주희 정대경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애리 이영훈
이예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이상진
정진우 조민지 조서민 조영혜
천은진 최숙희 최영규 최은미
최지훈 최희정 홍서영 황지영

● 반주자

강영우 강예은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혜 김은경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경주 김지민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진희
김현정 김현주 김효종 남궁진
남민우 남예셀 노보라 노성희
노소라 도은경 문은영 문예지
문희정 박선희 박아령 박오셀
박윤진 박지훈 박주영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지연 안호진 안희준
오주영 우영진 염주희 정대경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애리 이영훈
이예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이상진
정진우 조민지 조서민 조영혜
천은진 최숙희 최영규 최은미
최지훈 최희정 홍서영 황지영

● 반주자

강영우 강예은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혜 김은경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경주 김지민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진희
김현정 김현주 김효종 남궁진
남민우 남예셀 노보라 노성희
노소라 도은경 문은영 문예지
문희정 박선희 박아령 박오셀
박윤진 박지훈 박주영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지연 안호진 안희준
오주영 우영진 염주희 정대경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애리 이영훈
이예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이상진
정진우 조민지 조서민 조영혜
천은진 최숙희 최영규 최은미
최지훈 최희정 홍서영 황지영

● 전도사

강요안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정옥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국 박지혜
설상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원유미 이민혜 이철훈 이수연
이영은 이윤희 이은희 이지영
임지훈 윤성진 윤성준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정병천 정선진
정은숙 조 단 조민철 최정수
최진숙 최현철 코바야시 메구
하여진 하정훈 한현희 호스나
황나연 한스온 Amos L e 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 사역장로
강희운 권덕수 김경덕 김수광
김수호 김현중 남 영 백남인
서인택 신종수 우승호 윤영오
이광철 이문호 이정기 임병욱
정갑안 한태중 홍규석
● 시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현
강진섭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박호택 성현재 손정래
신술문 심상일 여운필 유광민
이관필 이상현 이수성 이은창
이준상 장민용 정현주 조구배
조성민 조운환 최경주 한상훈
하규희 홍관희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 명예장로
김용식 염성국 윤부국
●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연수 김요셉 김중수 윤창근
윤한돈 안정식 임현식 오명진
정성관 최태화 최승호 최태영
주교령
● 성가사
고양수 김성수 김수정 김용희
김안용 김승규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운필 염해수 유기열
이정민 이종원 이종현 정영진
정현정 조경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소천

10/19(토) 도곡 조성진 성도 시부상 고 강호구
10/20(일) 하모니 김상재 성도 모친상 고 박수자
10/20(일) 분당B 송지영 성도 모친상 고 김숙희
10/20(일) 분당A 주상희 성도 모친상, 김명운 성도 빙모상
고 처춘자
10/21(월) 서빙고 최현재 장로 모친상, 정승욱 권사 시모상
고 김길순
10/21(월) 이촌 김수정 성도 시모상 고 박순자
10/22(화) 서초A 김정은 성도 부친상 고 김연석
10/24(목) 서빙고 김영희 권사 남편상 고 김형우
10/24(목) 일산파주 임현정 집사 부친상 고 임종열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민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성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2-3215-3413)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 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봉사
자격: 경로식당 배식봉사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 복지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문의: 우성정 사회복지사(02-794-6100)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
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14시~17시),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온누리요양센터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치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운
외상 어르신)
내용: 이미용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미용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양지온누리교회 부근)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재정

온누리교회협의의 현금 메뉴에서 모바일현
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
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현금은라인 안내
입금주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입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갑사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현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02-793-2997, 010-4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광고

제16회 온누리 캠퍼스 한마음 축구대회 참가자
모집
일시: 11월02일 09시~18시
장소: 명지대 자연캠퍼스대운동장(용인)
대상: 온누리성도 및 가족(성인)
문의: 서빙고 양재: 장관수 팀장(010-9080-8974)
수원: 박준수 팀장(010-4655-1999)
남양주: 오현정 팀장(010-6643-9933)
인천: 송욱 팀장(010-6426-5726)
대전: 김성동 팀장(010-5454-9338)
평택: 지성민 총무(010-5529-9457)
서산: 송건우 총무(010-4912-8487)
이외 캠퍼스: 장관수 팀장(010-9080-8974)
두란노국제선교회(TIM) 간사 정규직 공개 채용
모집: 행정간사 1명(정규직, 4대 보험)
자격: 세례교인, 경력 무관 및 경력 우대
우대: 장/단기 선교 경력, FA(온누리청년단기선교)
근무: 경기도 용인시 Acts29 비전빌리지 TIM
지원: 지원서(본 기관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지원
접수(pmanager@4lovet.com)
마감: 11월 30일(토) 혹은 채용 때까지
문의: 기획동원팀 팀장(070-4464-8102)

CGN
함께!
미디어선교

20주년 특집 다큐 <네임리스 :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전 세계 선교사들과 함께
담대하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CGN의 선교 비전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20주년을 맞아 '선교의 내일을 더하는 CGN'은
조선에 온 일본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 <네임리스 : 이름 없이, 빛도 없이>를 비롯해
다양한 복음 콘텐츠로 미디어 선교에 앞장서겠습니다.



선교 다큐 <바울로부터>



<2024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



<빙하의 일각>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